



민·관·기업의 공동기획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그린웨이환경축제” – 10년의 이야기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목적 및 배경

하늘에서 푹 떨어진 환경축제?

민관협력의 첫 단추 환경축제로 꿰다

‘전라북도와 기업 환경단체가 함께 만드는 그린웨이 환경축제’
축제 포스터에 10년간 빠지지 않고 들어간 문구입니다.

처음의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부안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또 다른 이름 ‘핵 폐기장’ 설치를 두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한편에 서고, 부안군과 전라북도가 한편이 되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새만금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두고 전국의 환경단체들과 일부주민들의 반대활동과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기반공사와 행정기관의 홍보전에 법정싸움까지 가는 모습이 2000년대 중반 전라북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방폐장과 새만금은 전라북도 환경을 상징하는 동시에 민관협력의 수준을 말해주는 단어였습니다. 전라북도와 환경단체로 대표되는 시민사회는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으르렁거렸고, 애써 떼어놓아도 평행선을 달리며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상황도 있었습니다. 2000년 중반 전라북도는 환경교육과 자연체험학습이 태동하여 시민과 교육현장을 지향하며 발걸음을 떼던 시기입니다.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과 숲 체험, 하천생태교육, 안전한 먹거리 교육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조금씩 갖추어 가던 환경단체는 시민들과 만나는 현장을 찾아 특산물과 먹거리가 대부분인 지역축제행사 부스 한쪽에 자리를 펴고 교육과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체별로 산발적이고 소규모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웠고 마



부안방패장 갈등사진



새만금 조감도 사진



8회, 10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및 총회



8회, 10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및 총회

땅한 장소 마련도, 프로그램 구성도 어려웠습니다.

시민활동가들의 헌신으로 이어오던 지구의 날 행사는 알찬 내용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라는 의제를 시민일반에 확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환경교육 단체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키웠다고 보여집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제21)가 실무를 맡아 ‘전라북도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라는 이름의 정기회의가 구성되었고 처음에는 단체 간 정보교류 수준에서 회의가 진행되다가 공동주관 행사를 하게 되고 이후에는 환경교육 한마당을 열자는 의제가 제안되고 지속협 자연생태분과에서 환경한마당 추진을 위한 테이블이 마련되었습니다.

드디어 2007년 하반기에 그동안 지구의 날에 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프로그램을 한데 모을 수 있었습니다. ‘환경교육간담회’ 참여 민간단체 20개와 전라북도를 포함한 10개의 유관기관이 테이블에 모여 환경축제 개최를 위한 준비모임을 진행했습니다. 2008년 전라북도 본예산 3천만 원 사업비로 준비모임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축제 공동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그린웨이 환경축제’라는 이름으로 제1회 환경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선 여간 불가능할 것 같던 ‘민관협치’라는 말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으로 가는 길 위해 매년 다양한 주제를 합의하다

그린웨이환경축제의 기본 컨셉은 환경한마당입니다. 전북에서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기관과 단체와 기업들이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 축제입니다. 매년 환경기술인과 환경기업협의회, 녹색기업들이 축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기업에서 진행해온 환경사업과 제품을 선보입니다. 환경단체들은 각자의 전문분야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이슈를 제시하고, 체험을 선보이며, 기획 프로그램으로 시민을 만납니다. 행정의 한 파트너인 지방환경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매년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왔습니다.

민, 관, 기업이 함께한다는 것은 다양성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슈에 대한 입장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주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축제의 주제를 정하는 한 가지 기준은 긍정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큰 주제는 한 목소리로 이야기 하되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주장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전라북도 환경축제입니다.

매년 주제는 그 시기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유엔 IPCC 기후변화 보고서가 국민의 관심 속에 있을 때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대응’, 그린스타트가 시작되던 해는 ‘온실가스 줄이기와 생활 실천’, 2011년 12년엔 ‘신재생에너지와 탈핵’이 주제가 되었고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자원순환’, ‘지구’의 주제를 거쳐 10년이 되는 올해엔 ‘환경교육제도화’가 주제로 합의되고 프로그램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환경축제가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원칙

그린웨이축제는 ‘탄소제로’ 축제를 지향합니다. 축제를 진행하다보면 수많은 인쇄홍보물을 제작해야 하고, 각종 현수막, 공연과 체험에 필요한 에너지, 체험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등이 환경축제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린웨이축제는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8회 축제에는 ‘에너지한판 붙자’라는 기획이 진행되었습니다. 도청 앞마당에 세워진 80여개의 부스와 무대에서 사용되는 전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행사장 전기는 도청 건물 배전반과 이동식 디젤발전기 두 곳에서 충당합니다. 행사용 디젤발전기는 지역에서 생산한 바이오 디젤을 원료로 전력을 생산하고, 도청 배전반에는 전력사용량을 보여주는 계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행사 일주일 전부터 1kW 햇빛(태양광)발전기 5기를 설치하여 생산량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사에 필요한 전기 사용량보다 행사를 위해 설치한 햇빛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 생산량이 더 많아 에너지한판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퍼포먼스에서 햇빛발전기를 차례로 연결한 무대의 전기사용량을 알리는 계량기가 천천히 돌다가 마침내 거꾸로 돌아가는 장면은 10년간의 탄소제로 축제를 상징하는 명장면이 되었습니다.

행사 초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페트병 생수를 지원받았습니다. 해를 거듭 할 때마다 페트병 처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페트병을 체험교육에 재활용하거나 행사장을 꾸미는 작품으로 만들기도 하였지만 수 천 개가 발생하는 생수병은 늘 고민이었습니다. 결론은 페트병으로 된 생수를 포기하지는 것이었습니다. 4회부터는 음수대를 설치하고 컵을 비치하여 사용한 컵은 자원봉사자들이 씻는 방식으로 생수병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먹거리 부스에서도 일회용 호일과 스티로폼 접시 사용을 줄이기 위해



8회 축제 당시 설치된 태양광발전기와 자전거발전기



8회 축제 당시 설치된 태양광발전기와 자전거발전기



축제 때 사용한 머그컵



니눔장터 또또시장

참가자들이 용기를 가져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7회 때부터는 전면금지하였고 커피음료부스에서는 일회용 컵 대신에 머그컵을 축제 주최 측에서 준비하여 보증금을 받고 대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매년 그린웨이축제에서는 재활용 나눔장터가 또또시장(또쓰고 또쓰는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열립니다. 사전 접수 참여자 500팀이 장터를 펼치고 장터를 이용하고자 온 시민 천여 명이 축제 마당을 가득 채우는 전북에서 열리는 규모가 가장 큰 재활용장터입니다. 축제가 종료되면 행사기간에 나온 모든 쓰레기봉투를 한자리에 모아 재 분리하여 처리합니다.

환경단체가 앞장서 준비하는 축제

그린웨이축제는 축제진행을 위한 메인 기획사가 없습니다. 대

2017년 기획단 업무분장 표

구분	소 속	비 고
총괄	전북환교넷	준비위 집행위원장
	한국환교넷	준비위 기획단장
기획	전북지속협	기획 지원
	충남환교넷	전국 연대
	전북생명의숲	그린웨이 구간 체험
	전북자연환경연수원	
	전북강살리기추진단	
	시민행동21	와글와글 환경 교육
운영	(주)아람	홍보 기획
	전주지속협	운영 지원
	전북지속협	재정, 자원 봉사
행정 지원	전라북도	행정 지원
	전주시청	행정 지원
	새만금지방환경청	기관 협력
	전라북도교육청	행정 지원
사무처	전북지속협	준비위 사무처장
	준비위	
	준비위	

신 전북지속협과 전북환경교육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관하면서 프로그램 기획 및 모든 진행을 합니다. 주요 환경단체로 구성된 공동사무국(6개 단체)이 축제기획단이 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 존과 전시 존을 꾸미고 동선을 정하고 참여단체를 관리하며, 지역 문화 활동가가 무대감독을 맡습니다. 지속협 사무국은 결정된 내용의 실무처리와 진행 보조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전에 열리는 조직위원회 총회에서 축제계획을 결정하고 참여단체들이 소식지와 포스터 배포의 역할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100명의 자원봉사 대학생 ‘그리너스’(GREENERS)

매년 축제준비기가 오면 도내의 대학생에 자원봉사 모집공고를 합니다. 신청한 대학생을 선발하여 매년 100명의 자원봉사를 운영합니다. ‘Green Earth’와 ‘Green을 만들어가는 이’를 혼용하여 ‘GREENERS’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면접과 기본교육을 통해 축제내용을 이해하게 되고 발대식을 거쳐 활동을 시작합니다. 축제 사전에는 ‘그린챌린지’라는 이벤트로 행사주제에 맞는 각종 홍보활동을 지역중심지에서 또는 SNS를 이용해서 활발하게 진행합니다. 2일간(2017년은 3일간)의 축제기간에는 무대 운영, 체험활동 지원, 기획프로그램 운영보조, 평가 설문 등을 진행합니다. 탄소제로 축제, 깊이 있는 환경교육 및 체험활동 등 운영보조 및 원칙을 지키는데 그리너스(GREENERS)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너스 사진



올해 10회 축제가 끝난 이후, 전라북도 소재의 큰 규모의 닭 가공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그리너스’(GREENERS)라는 제품명을 썼습니다. 벌써 내년이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행사규모 만큼 거버넌스도 성장한 그린웨이환경축제

그린웨이축제는 10년 동안 진행하며 성장해 온 축제입니다. 도청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환경축제로 알고 있으며 참석하는 도민의 비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수립하는 축제 예산도 2008년 3,000만원에서 2017년엔 13,800만원으로 커졌고, 참가자 규모도 수천 명에서 수만 명 단위로 커졌습니다. 참가단체도 35개 단체에서 150여개로, 자원봉사자도 15명에서 100명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10년을 한결같이 함께해준 환경단체들과 기업, 행정기관들의 노력이 있어서 가능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매년 기념식에는 주요기관장과 정치인, 단체대표들이 참여합니다. 10년 동안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퍼포먼스도 하였지만 여러 가지 약속과 선언도 하였습니다. 그 긍정적인 약속들이 전북지역 거버넌스 활동의 주요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가족의 손을 잡고 축제장을 찾아주신 수만 명의 도민들이 지속가능한 지구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힘이라 믿습니다.

함께한 단체들

전라북도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전주시	전북환경교육네트워크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가환경교육센터	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